

백서로 재탄생 5·18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무슨 내용 담나

지만원 등 역사왜곡 400매 걸쳐 조목조목 반박

초판보다 5배 늘어난 3500매 분량 올 연말 출판 집단 발표·도청 진압작전 軍 기록 등 대폭 추가

올 연말께 모습을 드러낼 최초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넘어넘어)' 개정판에는 계엄군의 집단 발표 및 도청 진압작전 당시 상황, 희생자 암매장 등 31년 전 초판에 담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대폭 추가된다.

애초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 출간 예정이었으나 지만원씨 등의 5·18 왜곡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고 각종 정부 기록물 분석을 거치면서 출간 시기와 분량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3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집필자들에 따르면 '넘어넘어' 개정판은 1985년 원고지 700매 분량으로 출간된 초판보다 5배 늘어난 3500매 분량의 백서 형식으로 올 연말께 출판 예정이다. 출판사도 풀빛에서 창작과비평사로 바뀐다.

개정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10일간의 항쟁기록을 최초로 담아 큰 반향을 일으킨 초판에 더해 광주정문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 관련 재판 및 검찰 기록 등 추가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항쟁의 주체인 시민들의 시각에서 서술하기 때문이다.

애초 개정판은 이달 출간될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측은 5·18 왜곡세력

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아달라는 요청을 한데다, 10만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양의 기록물 분석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면서 미뤄졌다. 개정판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 10여년에 걸쳐 집요하게 5·18을 왜곡하는 지만원씨 등 극우세력에 대한 반박 성격의 자료 제시와 내용이 원고지 300~400매가량 서술된다.

새롭게 담긴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께 도청 앞 집단 발표 당시 상황, 27일 도청 진압작전 관련 내용이다. 집필자들은 당시 현장 계엄군들이 주고 받았던 군(軍) 무전기록, 5·18 이후 군인들이 작성한 수기, 광주 시민군들의 증언 등을 통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구성한다.

지만원씨를 비롯한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북한군 600여명 투입됐다 ▲도청 진압 작전시 사망자는 시민군 사이의 오인 사격 때문이다 ▲시민군 총기 습득 시점 계엄군 발표보다 앞섰다는 등 왜곡 논리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5·18이 국내 민주화운동의 한 획을 그은 항쟁으로 사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나는 데도, 황당한 논리를 퍼면서 왜곡을 일삼는 극우세력에 대응하는 이유는 책이

백서의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집필자들은 설명했다.

화순주남마을을 비롯한 광주 외곽 곳곳에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됐던 양민학살 관련 내용도 보다 상세하게 담길 예정이다. 항쟁 10일간의 사망자 외에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고문·폭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통계도 새롭게 작성돼 실린다.

개정판 간행위원회 관계자는 "31년 전 초판이 당시 피해자 등 시민들의 증언과 목격담을 토대로 광주의 진실을 급하게 알리기 위해 작성돼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개정판은 광주시민의 증언과 정부·사법부·의회·수사기관의 기록물 등을 토대로 항쟁과 이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잘 찍었네” 3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 하촌장수마을 어르신들이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봉사원들로부터 카메라작동법을 익히고 있다. ‘자녀들에게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 보여주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영상교육은 한 달여간 촬영·편집을 한 뒤 5월 말께 ‘영상물 시사회’를 열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환경련, 다음주 옥시 규탄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 촉구...광주·전남 피해자 55명 중 7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광주에서도 '옥시(옥시레킷벤키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다음주 중 개최되는 등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피해자가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민적 문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르면 다음주 중 광주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광주환경련은 지역 대형마트 앞에서 1인시위나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 불매 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는 55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7명이다. 전국적으로는 피해신고 1282명에 사망자는 218명에 이른다. 이 중 사

Q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를 훨씬 웃도는 배상액을 물리는 제도로 수백억~수천억원 이상의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망자 70명 포함, 피해자 177명의 피해자를 낸 옥시 측이 지난 5일 형식적인 사과회견을 열면서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단체들이 강력 발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폐질한 사망자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한지 5년만에 사과를 했지만 검찰 수사와 제품 불매운동 확산에 떠밀리는 듯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는 "옥시 측의 사과 회견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꼼수 회견"이라며 "이런 일이 한 국가에서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8 달뜨기 03:52
해질녘 19:21 달지기 16:22

‘화창’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겠다.

광주	맑음	11/23	보성	맑음	9/22
목포	맑음	12/21	순천	맑음	12/24
여수	맑음	14/21	영광	맑음	11/22
나주	맑음	10/23	진도	맑음	11/22
완도	맑음	13/22	전주	맑음	12/23
구례	맑음	9/23	군산	맑음	11/20
강진	맑음	11/22	남원	맑음	8/23
해남	맑음	11/22	홍산도	맑음	12/19
장성	맑음	9/23			

		오전		오후	
서해	안바다	남서~서	1.5~4.0	남서~서	0.5~1.5
남부	면바다	남서~서	2.0~4.0	남서~서	1.0~2.5
남해	안바다	남서~서	1.5~4.0	남서~서	0.5~1.5
서부	면바다(동)	남서~서	2.0~4.0	남서~서	1.5~2.5
	면바다(서)	남서~서	2.0~4.0	남서~서	1.0~2.5

		밀물		썰물	
목포		12:02	05:09	00:00	17:38
여수		07:09	00:42	19:33	13:14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1/26	12/21	11/24	11/25	11/24	12/24	13/25

교육부 프라임 사업 선정...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신설 동신대, 에너지신산업·전기차 주력

정부발(發) 구조개혁의 서막(序幕)이 울렸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대학 정원 조정 사업인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프라임 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와 정원을 개편하는 대학에 거액의 '당근'을 주게 된다. 선정되면 연간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그 만큼 조선대·광주대 등 탈락한 대학들은 참담한 분위기다.

동신대·호남대는 모두 '소형 사업'에 해당하는 창조기반 선도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매년 50억원씩 받게 된다.

동신대의 경우 에너지신산업·전기차 주력 분야로 해 145명의 정원을 이동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에너지융합대학을 신설해 에너지전공·에너지융합학부 등 2개 학부 8개 전공을 두도록 했고 에너지융합학부에 ▲에너지IoT전공(20명·신설)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전공(20명·신설) ▲융합정보보안전공 등을 신설한다. 에너지전공학부에도 ▲전기차제어전공

(25명·신설) ▲신소재에너지전공(30명·신설) 등을 새로 개설한다. 동신대는 여기에 교육과정 혁신 프로그램도 포함해 취업률을 2015년(72.4%) 대비 2023년까지 76%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호남대도 법학과·일본어과를 폐지하고 경찰학과·경영학과 인력을 조정해 미래자동차공학부(80명)를 신설하고 전기공학과를 증원(20명)하는 등 105명의 정원을 공학계열로 이동하는 학사 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에 비해, 중국 구공자동차와의 협약을 통해 완성차 및 친환경 자동차와 연계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형 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조선대의 경우 애초 300명에 육박하는 인문계열 정원을 이공계로 돌리는 파격적 구조개혁안을 내놓았다가 폐지되거나 통폐합 대상 학과 등의 반발로 대폭 후퇴한 방안을 제출했었다.

광주대도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조정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에 서류를 냈다가 탈락의 쓴맛을 봤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흥군
GOHEUNG COUNTY

고흥에는 건강한 **맛**이 있다

깨끗한 바다, 건강한 토양,
정직한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져
고흥에서는 365일 건강한 먹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흥청정마켓
www.goheungmarket.com
1577-8793

